

##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결정몰입과 전공만족의 매개효과\*

이 지 원

이 기 학†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 및 전공만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272명(남 136명, 여 136명)을 대상으로 진로소명, 진로결정몰입, 전공만족,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에 대해 SPSS 21.0을 활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8.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Bootstrap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소명은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소명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진로소명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았고,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 수준이 높았으며, 전공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진로결정몰입 및 전공만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ootstrap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대학생 상담 실제에서의 시사점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진로소명, 진로결정몰입, 전공만족, 삶의 만족

\* 본 연구는 이지원의 석사학위논문(2014년 2월)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03722)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 50로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주관적 안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래 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적응적 측면 및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Diener, Lucas, Oishi, & Suh, 2002), 긍정심리학적 접근을 진로 이론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Walsh, 2008). 이러한 시도들 중 하나로 Lent와 Brown(2008)의 통합사회인지진로이론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Lent, Brown, & Hackett, 1994)과 주관적 안녕감 이론을 통합한 것으로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과 진로 만족을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진로 만족과 삶의 만족이 상호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둘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삶에서 진로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으로 가정한다. 전통적인 진로 이론에서도 개인과 직무 특성의 일치 여부(Dawis & Lofquist, 1984; Holland, 1997), 직업 환경의 특징(Russell, 2008)에 따라 개인의 만족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안하였던 바, 진로 및 직업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Heller, Watson, & Ilies, 2004). 그러나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진로 변인이 고려된 실증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Shin, Steger, & Lee, 2014) 확인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진로를 결정하고 성인기 이후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되는 대학생들에게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적응 및 발달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삶의 만족 수준을 낮추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학 내에서 운영 중인 학생 상담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통계 조사에 의하면 상담소를 찾는 대학생들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상담 증가율은 24%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내방 계기로는 취업 및 진로 고민과 관련한 스트레스, 불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간경향, 2015, 3, 31). 따라서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 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진로 관련 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조 관계를 밝히는 것은, 위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삶의 만족과 진로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과 진로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치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대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동일한 맥락에서 진로와 삶을 조망하는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가치와 흥미, 의미 추구와 같은 심리 내적 요인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이전보다 훨씬 주관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측면이 강해졌다. Savickas (2005)의 진로설계이론에서도 현대 사회의 개

인은 자신의 진로관련 행동과 직업관련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구축해나간다고 설명하며,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는 진로 목표 설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진로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Brown, 1995),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다. 진로 발달은 비단 직업을 선택하고 일에 종사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과정이므로 진로 상담연구에서도 개인의 가치와 동기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일에 대해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가치로서, 최근 진로를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진로소명’(Calling and Vocation)이다. 초기의 소명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신의 부름을 받았다는 기독교적 개념으로(Dik & Duffy, 2009)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더 이상 종교적 해석에 국한되지 않고 해석의 폭이 확장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소명이 정의되었고, 개념상의 혼재가 있어 왔다. 이에 Dik과 Duffy(2009)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개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을 찾아 소명의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소명은 ‘초월적 부름(transcendent summons)을 경험하고, 목적과 의미를 이끌어 내거나 보여주는 방향에 초점을 둔 방식으로 특별한 삶의 역할에 접근하며, 동기의 원천으로 타인지향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진로소명은 연령, 고용수준, 종교적 선호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Duffy, Allan, & Bott, 2012). 또한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초월적 부름’ 역시 신이나 종교에 제한되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나 운명에 대한 믿음 등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차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진로소명을 이해하고자 한다.

소명의식은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여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이은경, 2011; 장진이, 이지연, 2014; Claes & Quintanilla, 1994; King, Miles, & Day, 1993). 또한 소명은 직업을 유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 소명의식 없이 일에 몰두하는 경우 직업을 그만 둘 가능성이 있는 반면(Duffy, Dik, & Steger, 2011), 소명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자존감을 높여 심리적소진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설경옥, 임정임, 2013). 또한 진로소명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Dik, Eldridge, Steger, & Duffy, 2012; Duffy, Allan, & Dik, 2011),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높은 수준의 직무 만족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rzesniewski, 2003). 또한 소명의식이 경력 개발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완충 역할을 하여 개인이 맡은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고, 성취감을 경험하게끔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ik & Duffy, 2009). 반면, 직업 선택에 있어 외적 보상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경우나 경력개발 중심의 진로 발달과는 부적의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이렇듯 진로소명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진로변인으로, 대학생 시기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특히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은 현실적인 직업 선택

을 위해 구체적인 탐색을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진로발달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직업적 탐색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Savickas, 1997).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대학생들의 내적 가치와 동기는 구체적 진로탐색 행동과 진로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진로소명은 일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진로태도 성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박주현, 유성경, 2012). 또한 진로소명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난미, 이은경, 2012). 신윤정(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소명이 진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를 진로자기효능감과 내적동기가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진로소명은 개인의 진로만족 및 진로적응과 높은 정적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감 및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진이, 이지연, 2014; Duffy, et al., 2012). 지금까지 진행된 소명연구들에서 삶의 만족과 소명의 관련성은 가장 일관적으로 보고되어 온 결과 중 하나이다(Douglass, Duffy, & Autin, 2015). 예컨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와 우울을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Treadgold, 1999), 직업만족도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ffy, Allan, Autin, & Bott, 2013).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결과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성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 심지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실직 상태의 성인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Duffy et al., 2013; Duffy et al., 2012; Duffy, Manuel, Borges, & Bott, 2011; Duffy & Sedlacek, 2010; 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이는 대학생들이 현재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진로소명이 일에 대한 태도, 가치, 목적으로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며(장진이, 이지연, 2014), 삶의 만족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소명 연구는 그만큼 중요하다. 국내외 관련 선행 연구결과들을 통해서도 대학생들의 진로소명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심예린, 유성경, 2012; Duffy et al., 2011; Duffy & Sedlacek, 2010).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에 대한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도 이러한 정적 관계가 보고되어 왔다(Duffy et al., 2012; Hernandez, Foley, & Beitin, 2011). 이에 따르면 진로소명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삶에서의 행복감과 충만감을 자주 경험하고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삶의 만족이란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에 해당되며(Myers & Diener, 1995) 개인이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또 다른 요소인 정서적 측면에 비해 인지적 측면으로서의 삶의 만족은 상황의 영향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며(Diener, Scollon, & Lucas, 2003),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Michalos, 1991) 행복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인으로 삶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진로소명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매개 변인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정적 관계는 진로정체감(양난미, 이은경, 2012)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개되거나, 학과만족 및 삶의 의미를 통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uffy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진로결정몰입과 전공만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그 동안 진로소명과 관련한 연구들이 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삶의 의미, 진로 정체감과 같은 인지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반면, 그 외의 면을 간과해왔다는 Duffy와 Dik(2013)의 제언에 주목한 것이다. 따라서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과 전공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진로소명이 관념적, 인지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차원으로서의 몰입이나, 학업 장면에서도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진로결정몰입에 대해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의 몰입은 어떤 대상에 깊이 빠지는 것을 뜻하며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삶이 그 목적에 초점 맞춰지고 이를 인식하며 몰두하는 정도(Csikszentmihalyi, 1990)를 가리킨다. 나아가 진로결정몰입이란, 특정 직업목표를 향한 강한 애착 및 선호와 관련된 명확한 의식을 의미한다(Blau, 1988). 또한 이러한 확신을 얻기까지의 과정, 즉, 자신과 진로에 대한 탐색, 목표의 구체화, 깊이 있는 관여 행동(Marcia, 1993) 및 선택에 대한 주위 피드백을 얻는 과정, 특정한 진로목표에 대한 잠재적인 장애물을 인지하는 과정(Blustein, Ellis, & Devenis, 1989) 모두를 포함한다. 진로결정몰입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진로결정이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개념적 정의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진로결정몰입은 과정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진로결정과 구분되고, 진로 확신 및 진로에 대한 애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다르다. 진로 연구에서 진로결정몰입은 일찍부터 진로결정과 진로실행 사이의 발달과정으로 강조되어 왔으며(Blau, 1988; Harren, 1979; Super, 1957), 진로선택과 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며(김창대, 2002), 몰입의 수행여부가 이후의 직업 수행 및 정서 상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최수정, 2007; Phillips & Paziienza, 1988).

진로소명과 몰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몰입을 통해 더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Dik & Duffy, 2009; Duffy et al., 2011; Hirschi, 2010; Steger et al., 2010). 이는 진로소명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몰입할 가능성이 높고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로소명과 진로결정몰입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추론할 때 진로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일에 대한 자신의 내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자아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과 진로에 대해 깊이 있는 탐색이 요구되는 진로결정과정에서 몰입하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개념에 내재화 되어 있는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적 진로준비를 수행하기 때문에 진로목표에 대한 애착과 확신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긍정적 진

로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진로결정몰입의 수준은 개인의 내적 동기의 수준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Brown & Lent, 1996; Lindley, 2005; Vansteenkiste, Lens, Witte, Witte, & Deci, 2004), 진로소명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일에 대한 대표적인 내적 동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소명이 대학생들의 내적 동기로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진로소명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 실제 직무에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로만족을 어떠한 변인으로 구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진로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특정 영역의 만족감을 의미한다(Lent & Brown, 2008). 대학생들에게 있어 성인의 일과 유사한 영역은 바로 학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전공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입학하면서 자신의 적성, 소질, 현실적인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학업 수행의 주요 영역이 된다. 물론 취업난, 입시 경쟁 등으로 인해 전공 불일치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고, 전공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으나(이건남, 2009) 전공에 만족하며 적응하는 것은 선택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 이후 생활 과정 중 매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며 취업 이후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진로의식의 성숙을

방해하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에 해야 할 진로 준비행동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하여 취업에 곤란을 겪게 되거나, 경력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된다. 이처럼 전공만족도는 미래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서, 진로 만족 및 직무 만족의 잠재적인 예언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무 만족이라는 개념 대신 전공만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만족을 구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Lent와 Brown(2008)의 통합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진로만족이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제시된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진로소명은 진로결정몰입을 촉진하며,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만족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몰입이 진로만족의 잠재변인인 전공만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설정하였으며, 전공만족이 삶의 만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소명은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은 전공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칠 때, 진로결정몰입과 전공만족의 매개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이때의 매개효과는 간접효과 뿐 아니라 직접효과도 있을 것으로 가정하며, 두 모형 간의 관계는 내재된 모형(nested model)의 관계를 갖는다. 완전매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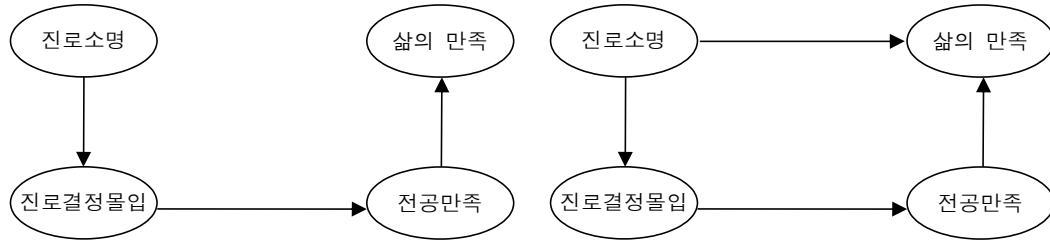


그림 1. 완전매개 경로구조 연구모형(좌) 및 부분매개 경로구조 대안모형(우)

과 구조모형이 타당할 경우, 진로소명이 높은 학생들이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이유는 높은 진로소명이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전공만족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대안모형인 부분매개효과 구조모형이 타당할 경우에는 진로소명이 높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은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하고, 전공만족 수준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또 다른 매개변인이 고려되어야 하거나, 진로소명의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결정몰입, 전공만족,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진로소명, 삶의 만

족, 진로선택몰입, 전공만족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대학생들의 진로발달맥락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189명은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96명은 배부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285부의 설문지 중 응답 내용에 결측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표 1. 연구대상자 특성

(N= 272)

	구 분	빈 도(명)	백분율(%)
성 별	남 자	136	50.0
	여 자	136	50.0
학 년	1학년	13	4.8
	2학년	115	42.3
	3학년	66	24.3
	4학년	78	28.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79	65.8
	자연이공계열	93	34.2

13명의 자료를 제외한 27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03세 ( $SD = 2.19$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특성은 표 1과 같다.

#### 연구절차

설문은 2013년 9월~2013년 10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 내용은 인구통계학적인 질문과 연구모형의 측정변인에 대한 조사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참가자 모집 및 설문 실시의 전 과정은 학과 내 연구심의위원회(DRC)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 참여자 모집 절차는 연구자가 연구자 소속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안내문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 도중에 설문 참여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 응답한 내용은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점,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 중도에 설문 작성을 멈추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각각의 사항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확인 서명을 받았다.

#### 측정도구

##### 진로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 Questionnaire: CVQ)

진로소명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예린(2010)이 번안하고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진로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이하 CVQ)를 사용하였다. CVQ는

Dik, Eldridge와 Steger(2008)가 소명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 다양한 문화에 적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설문 도구로, 개발 당시 미국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 또한 CVQ는 개인이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인 충만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헌신을 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을 얼마나 인식하는지를 측정하며, '초월적 부름-존재', '목적/의미-존재', '친사회적 지향-존재'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는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되어 있고, 4점 Likert식 척도로 측정하며(1 =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4 = 전적으로 해당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예린(201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Cronbach's  $\alpha$ )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로소명의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는 .85로 나타났으며, 하위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초월적 부름-존재' .83, '목적/의미-존재' .84, '친사회적 지향-존재' .82로 보고되었다.

#####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신능(2006)이 번안한 삶에 대한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이하 SWLS)를 사용하였다. SWLS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것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지각하는 만족의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 5문항, 7점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Cronbach's  $\alpha$ ) .87로 보고되었으며, 안신능(2006)의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의 내적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탐색 및 몰입 척도(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 VECS)**

진로결정몰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수정(2007)이 번안하고 김태환(2013)이 수정한 직업적 탐색 및 몰입 척도(Vocational Exploration and Commitment Scale: 이하 VECS)를 사용하였다. VECS는 Blustein, Devenis와 Kidney(1989)가 개발한 것으로, 개인의 진로탐색행동을 통해 진로대안을 선택하여 몰입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한 진로탐색몰입의 개념을 구인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 수준이 낮은 미 몰입 단계를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 간 개념적 방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 각 문항을 역 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수정(200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Cronbach's  $\alpha$ ) .85로 나타났으며, 김지근과 이기학(2011)의 연구에서는 .90으로 확인되었다. 김태환(2013)의 연구에서는 .9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척도(Academic Major Satisfaction Scale: AMSS)**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등(1985)의 SWLS를 참고하여 Nauta(2007)가 제작한 전공만족도 척도(Academic Major Satisfaction Scale: 이하 AMSS)를 장소라(2013)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AMSS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Nauta(2007)의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94였고, 장소라(2013)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의 내적합치도는 .89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 및 AMOS 18.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통계를 산출하여 기술적 경향을 파악하였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내적 신뢰도 계수를 구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변인 간의 복잡한 관계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또한 잠재변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분리하여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일차적으로 측정모형의 개념 측정 적절성을 검토한 후, 구조모형을 검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구조방정식은 변인들의 선형적 결합을 통하여 모수를 추정하므로 변량의 정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에 사전 절차로 왜도(skew)와 첨도(kurtosis)를 검토하여 변량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Kilne, 2005). 또한 독립변인들의 높은 상관관계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된 분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김준우, 2007), 공차와 분산팽

창지수를 검토하여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AMOS 18.0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으며,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SRMR, TLI, CFI, RMSEA 지수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기초자료분석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 왜도, 첨도를 산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사용의 적격성을 확인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사용의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규성 기준은 첨도의 절대 값이 7 이내인지, 왜도의 절대 값이 2 이내인지를 확인하였다(Hong,

Malik, & Lee, 2003; Kline, 2010). 그 결과 주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정상성 가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변인 간 상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진로소명은 진로결정몰입, 전공만족,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진로소명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고, 진로소명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으며, 진로소명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분석에 앞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이하 CFA)를 실시하여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 변인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때 측정변인으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사용할 경우 개별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을 줄일

표 2. 측정변인의 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 첨도 (N= 272)

	1	1a	1b	1c	2	3	4	M	SD	왜도	첨도
1	-							29.86	6.20	.223	.108
1a	.772 <sup>***</sup>	-						8.46	2.92	.459	-.197
1b	.736 <sup>***</sup>	.350 <sup>***</sup>	-					11.92	2.43	-.218	-.326
1c	.778 <sup>***</sup>	.367 <sup>***</sup>	.402 <sup>***</sup>	-				9.48	2.77	.081	-.462
2	.355 <sup>***</sup>	.223 <sup>***</sup>	.384 <sup>***</sup>	.223 <sup>***</sup>	-			59.30	12.48	.134	-.413
3	.200 <sup>***</sup>	.152 <sup>*</sup>	.244 <sup>***</sup>	.073	.388 <sup>***</sup>	-		22.08	5.68	-.613	-.225
4	.379 <sup>***</sup>	.234 <sup>***</sup>	.375 <sup>***</sup>	.271 <sup>***</sup>	.315 <sup>***</sup>	.356 <sup>***</sup>	-	22.62	5.67	-.400	-.254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1=진로소명, 1a. 초월적 부름-존재, 1b. 목적/의미-존재, 1c. 친사회적 지향-존재; 2=진로결정몰입; 3=전공만족; 4= 삶의 만족

수 있으며 측정 모수의 수를 줄이고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서영석, 2010; Bandalos, 2002;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또한 Kline(2010)은 측정모형에서 각 잠재변인별로 적어도 2개 이상의 측정 변수가 존재하거나, 이상적으로는 3개의 측정 변수를 갖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변인들 중 하위 변인이 존재하는 진로소명은 이를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하위 변인이 없는 경우에는 문항꾸러미 제작을 통해 측정 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 .10)와 분산팽창지수(VIF < 10)을 활용하였다.

측정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 공차의 범위는 .24~.70 사이에 분포하였고, 분산팽창지수는 1.25~4.14 사이에 분포하여 모든 측정변수가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구하였다. 적합도 기준은 SRMR은 .5 이하(문수백, 2009), TLI, CFI는 .9 이상, RMSEA는 .08이하를 적용하였다(홍세희, 2000). 각 지수를 통해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적합도 판단 기준에 해당되었다(SRMR=.0473, TLI=.957, CFI=.969, RMSEA=.066). 이에 자료의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표 3. 측정모형의 요인계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S. E.	C. R.
진로소명				
소명1. 초월적 부담	1.000	.498	-	-
소명2. 목적/의미	1.257	.753	.202	6.240***
소명3. 친사회적 지향	1.057	.554	.182	5.798***
진로결정몰입				
몰입1	1.000	.896	-	-
몰입2	.969	.896	.045	21.566***
몰입3	1.006	.913	.045	22.290***
전공만족				
전공만족1	1.000	.841	-	-
전공만족2	.937	.935	.052	18.007***
전공만족3	.758	.791	.049	15.329***
삶의 만족				
삶의 만족1	1.000	.954	-	-
삶의 만족2	.405	.663	.035	11.607***
삶의 만족3	.894	.754	.067	13.417***

\*\*\*  $p < .001$ .

설명하고 있으며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요인 부하량을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측정 모형에서는 여러 개의 관찰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게 측정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Bagozzi와 Yi(1991)에 따르면 관찰변인이 잠재변인을 설명하는 요인 부하량이 .50 이상, .95이하일 때 수렴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확인 결과 모든 관찰변인의 요인적재량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수렴타당도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완전매개 경로 구조 연구모형과 부분매개 경로 구조 대안모형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설적 구조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앞의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안모형의 경우 연구모형과 내재관계(nested relation)를 이루고 있어,  $\chi^2$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 비교,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두 구조 모형 중 더 우수한 모형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chi^2$  검증 결과 부분매개모형은  $\chi^2(50, N = 217) = 106.004, p < .001$ , 완전매개모형은  $\chi^2(51, N = 217) = 146.221, p < .001$ 로 나타났으며,  $\chi^2$  차이검증 결과,  $\Delta\chi^2(1, N = 217) = 38.217, p < .05$  인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형 간 적합도 지수 비교에서도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SRMR = .0492; TLI = .959; CFI = .969; RMSEA = .064)가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SRMR = .0974; TLI = .931; CFI = .946; RMSEA = .083)에 비해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으로 선정된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고, 최종 구조 모형의 경로계수 효과크기 및 유의수준을 표 4 및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소명이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으며,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표 4. 최종 구조 모형의 경로계수

구 분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S. E.	C. R.
진로소명	→ 진로결정몰입	1.298	.497	.232	5.599***
진로결정몰입	→ 전공만족	.197	.401	.031	6.263***
전공만족	→ 삶의 만족	.297	.293	.064	4.637***
진로소명	→ 삶의 만족	.589	.454	.115	5.114***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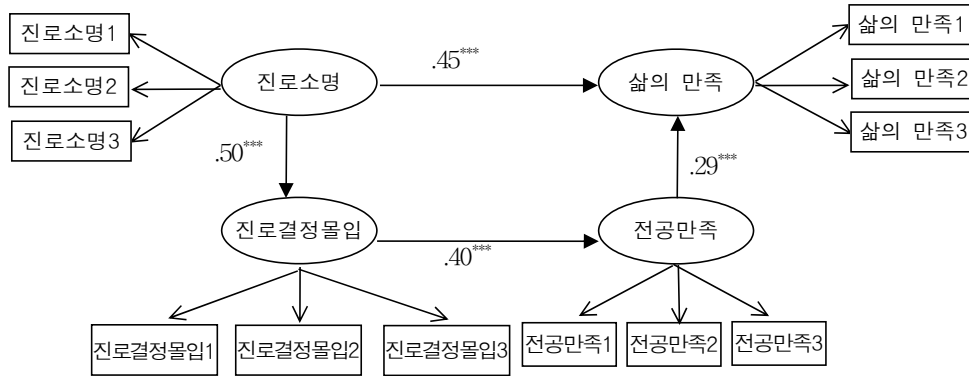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구조 모형 분석 결과

서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직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매개효과 검증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확인된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식을 활용하였다.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전통적 방식인 Sobel 검증은 모집단의 다변량 정규분포 만족을 가정한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일변량 정규성을 확보하였지만 실제 다변량 정규성을 완벽히 만족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Sobel 검증의 가정에 완전히 부합하지

표 5. 효과분해를 통한 변인 간의 영향관계 분석 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C. R.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95% CI]	Bootstrap 추정 p 값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추정치	Bootstrap 추정 p 값
진로소명 → 삶의 만족	.589	.454	5.114***				.665	.513	.000
진로소명 → 진로결정몰입	1.298	.497	5.599***						
진로소명 → 진로결정몰입 → 전공만족				.256	.200 [.107~.297]	.000			
진로소명 → 진로결정몰입 → 전공만족 → 삶의 만족				.076	.059 [.026~.101]	.001			
진로결정몰입 → 전공만족	.197	.401	6.263***						
진로결정몰입 → 전공만족 → 삶의 만족				.058	.118 [.057~.193]	.000			
전공만족 → 삶의 만족	.297	.293	4.637***						

\* p < .05. \*\* p < .01. \*\*\* p < .001.

는 않는다. 반면 부트스트랩 방식은 여러 개의 매개변수가 있을 때, 각각의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나 Cohen과 Cohen (1983)이 제안한 대로, 만일 모든 비표준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모든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일 때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간접효과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유의성을 검증하는 부트스트랩 방식이 적절하다는 제안(Taylor, MacKinnon, & Tein, 2008)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원자료( $N = 272$ )부터 1,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그 값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소명이 진로결정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진로결정몰입이 전공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다시 전공만족이 삶의 만족에 끼치는 정적 영향을 나타내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059(= .497 \times .401 \times .293)$ 로 유의했으며, 삶의 만족에 대한 직접효과도  $.454$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효과도  $.513$ 로 유의했다. 또한 진로결정몰입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끼치고, 전공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의 간접효과 역시  $.118(= .401 \times .293)$ 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진로소명, 삶의 만족, 진로결정몰입 및 전공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정적 관계에서 진로관련변인의 매개효

과가 보고되어 온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로결정몰입과 전공만족을 매개변인으로 하는 경로에서 변인 간 구조적 관계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진로소명은 진로결정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내적 동기 수준에 따라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에 주목하고 일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반영하는 진로소명이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여 진로결정몰입과정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몰입을 통해 더 긍정적인 진로발달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Dik & Duffy, 2009; Duffy et al., 2011; Hirschi, 2010)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Steger 등(2010)의 연구에서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진로발달과정에 더 깊은 수준으로 몰입하고, 일을 통해 만족을 경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Duffy 등(2011)의 연구에서도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일 만족과 일 몰입, 낮은 퇴직 의사를 보였다. 진로소명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진로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일에서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고, 이는 진로 결정 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Lips-Wiersma, 2002; Young & Valach, 2004). 뿐만 아니라 진로소명

은 진로발달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발휘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Dik, Sargent, & Steger, 2008; Duffy et al., 2011). 따라서 소명이 높은 사람들은 내적 동기로 인하여 자기 확신 수준이 높아지고, 주변 환경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목표성취를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결정몰입은 전공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자신과 진로 목표에 대한 탐색과정에 몰두하고, 깊이 있는 진로 관여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 발달 과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확신하며, 전공과정에서 배우는 바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은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따라오는 부정적 심리를 줄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진로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궁극적으로 취업 후의 직무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김순미, 이현림, 2008; 남진열, 2010; 황매향, 2002; Saks & Ashforth, 2002)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만족 및 직무만족을 구인하기 위하여 전공만족을 진로만족 및 직무만족의 잠재적 변인으로써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즉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학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과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여러 자발적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전공만족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로결정몰입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수집한 정보에 대한 숙고, 다양한 대안

의 탐색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목표의 구체화, 환경에 대한 검토 및 장애물에 대한 극복 의지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목표 성취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감과 긍정적인 기대감을 유지하는 태도를 포함(Scott & Church, 2001)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태도가 전공에 대한 만족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공만족은 전공을 선택한 순간에만 국한되어 경험되는 것이라기보다 대학입학 후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물론 진로결정몰입 수준 외에도 매우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복합적인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의 중요한 시사점은 그동안 전공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자기효능감(양난미, 이은경, 2012; 정명화, 박성미, 신경숙, 2004)이나, 학업 요인 및 환경적 요인(Russel & Petric, 1992) 외에도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하고, 깊이 있는 진로관여행동을 하는 것 또한 전공만족 수준과 정적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셋째, 대학생의 전공만족 수준은 삶의 만족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있어 전공에 대한 만족감은 삶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Lent와 Brown(2008)은 통합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특정 영역의 만족감, 예컨대 진로만족이나 학업만족 등이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가설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로만족이나 전공만족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들(이정애, 2013; 정미애,

조남근, 2012)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은 비단 학교생활이나, 학업적인 성취 측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미래 진로 발달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매개변인이다.

한편 진로만족이나 전공만족이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과 반대로,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대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떨어뜨리고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전공 불만족은 학업 부적응으로 이어져 중국에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부적응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하혜숙, 2000). 또한 전공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은 대학생 시기에 해야 할 과업을 놓치게 되거나 학업에 대한 흥미가 낮아져 일상생활에서도 활력과 동기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진로준비 행동 또한 효과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혜주, 2007). 진로준비행동의 부족은 이후 취업 활동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기 이후의 경력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공만족도는 단순히 학과에 대한 주관적 만족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 이후의 진로만족 및 직무만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잠재변인이 되며(Ware & Pogge, 1980),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선행변인으로서 대학생들의 삶 및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대학생의 진로소명의식은 진로결정몰입 수준을 높이고, 진로결정몰입과정은 전공만족을 높이며, 높은 수준의 전공만족도는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서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가설 검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심예린, 2010), 그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변인 및 경로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더불어 대학생들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를 학과만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Duffy 등(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전공만족에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통합된 사회인지진로모형에서 진로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한 경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인지진로이론을 대학생의 진로발달과정에 적용하여 확인한 연구는 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준비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한계가 있다(김영혜, 안현의, 2012). 본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내적 가치, 몰입행동, 진로만족을 나타내는 진로소명, 진로결정몰입, 전공 만족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의 내적 동기로서의 진로소명이 진로탐색 행동을 높임으로써 진로결정몰입 수준을 향상시키고, 진로결정몰입 수준이 높은 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학과에 대해 높은 만족을 경험하며, 이러한 만족감이 삶 전반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는 것을 실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것이다.

또한 연구 모형과 대안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완전 매개 연구 모형이 아닌 대안 모형으로서의 부분 매개 모형이 채택되어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몰입 및



전공만족을 통한 간접 효과뿐만 아니라, 직접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긍정 심리학자인 Seligman(2002)은 자신의 일에 소명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일에 더욱 더 열정적으로 몰입하게 되어 물질적인 보상, 명예가 없더라도 일이라는 목적 자체만으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복한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이러한 Seligman(2002)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진로소명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은 대학생들의 대표 발달 과업인 진로결정과정에 몰입하고, 다양한 진로관련행동을 통해 높은 전공만족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개효과가 유의한 가운데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가적인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적 지지나 진로장벽과 같은 맥락변인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을 때 진로소명, 진로결정몰입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구조 경로를 확인하여 대학생의 진로소명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인지진로이론과 주관적 안녕감 통합 모델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이론적인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둘째, 진로소명연구 및 진로상담 실제에 있어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의 진로상담은 정보 제공 및 개인의 특성이나 직무 특성 이해에 치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진로 만족 및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내적 동기,

개인의 주관적 가치, 몰입의 중요성 등이 확인되었으므로 진로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상담에서 개인의 가치나 동기, 몰입 수준과 같은 차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소명의 경우 개입을 통한 변화 가능성이 큰 심리적 변인이라는 점에서 상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진로소명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로 소명을 지향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라, 스스로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매 순간, 각각의 단계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로소명은 개인의 발달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득하고 변화하는 것이며, 삶과 진로를 대하는 일종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는 대학생 상담 장면에서 실제 진로선택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진로소명과 관련한 초점화가 이루어진다면 내담자의 전반적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개입으로는 내담자의 진로 탐색과정에서 진로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거나,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보고, 내담자의 이타적 가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진로소명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다면, 실제적인 진로선택몰입 및 전공만족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로선택몰입 및 전공만족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삶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미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지, 진

로계획을 준비하고 탐색한 경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몰입해 보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현재 전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기로 선택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학업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표집 분포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전체 대학생에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구 대상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만족을 구인하는 변인으로 전공만족을 선택하였다.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은 진로만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진로만족을 측정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후 다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다. 셋째, 횡단연구의 한계이다. 진로발달과정은 지속적이고 변화 가능한 역동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진로 선택 과정에 따른 관련 변인들의 관계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실제 직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소명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한다거나, 관계 구조의 변화가 있는지 검증한다거나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종단연구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밝힌 의의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순미, 이현림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선택몰입 및 진로탐색 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27-48.
- 김영혜, 안현의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적 관점에 근거한 국내 진로발달연구의 동향 분석. *진로교육연구*, 25(4), 1-18.
- 김준우 (2007). *즐거움 SPSS, 풀리는 통계학*. 서울: 박영사.
- 김지근, 이기학 (2011). 부, 모의 자율성 지지와 진로결정에의 몰입의 모형 검증: 자기성장주도성과 환경에 대한 진로탐색행동 및 자신에 대한 진로탐색행동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81-97.
- 김창대 (2002). 몰입 (Flow) 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모형. *청소년상담연구*, 10(1), 5-30.
- 김태환 (2013).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진로결정자율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주 (2007).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 결정 효능감 및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진열 (2010). 대학생의 개인적 직업 관련요인들과 취업준비상태의 관계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353-375.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 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주현, 유성경 (2012). 대학생의 소명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일희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2), 543-560.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

- 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설경옥, 임정임 (2013). 청소년동반자의 직무환경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집단자존감과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187-201.
- 신윤정 (2013). 대학생의 진로소명, 진로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와 진로적응성의 관계. 상담학연구, 14(1), 209-226.
- 심예린 (2010). 한국판 소명척도 타당화 -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예린, 유성경 (2012). 한국판 소명 척도 (CVQ-K)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847-872.
- 안신능 (2006). 자기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난미, 이은경 (2012).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삶의 만족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1), 51-68.
- 이건남 (2009). 미국대학의 전공선택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한국 대학의 전공선택 프로그램 개발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9(3), 33-60.
- 이은경 (2011). 청소년지도자의 소명의식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1), 115-140.
- 이정애 (2013).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인지적 변인 간의 구조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32(3), 97-116.
-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6(2), 87-101.
- 장소라 (2013). 사회적 바람직성과 전공만족도의 관계: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을 통한 경로모형 탐색.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이, 이지연 (2014). 교사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일의 의미, 소명수행 의식, 삶의 의미, 직업 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23-146.
- 정명화, 박성미, 신경숙 (2004). 전문대학생의 학과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경로 및 인과관계 분석. 상담학연구, 5(1), 95-111.
- 정미예, 조남근 (2012). 사회인지진로이론을 적용한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 예측모형. 상담학연구, 13(2), 401-415.
- 주간경향 (2015, 3, 31). 똑똑 “고민 상담하러 왔는데요.” <http://www.wkh.kr/khnm.html?mode=view&artid=201503241318071&code=15>에서 2015, 6, 30 자료 얻음.
- 최수정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몰입과 가족변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혜숙 (2000). 대학생의 학과(학부) 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매향 (2002). 진로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타협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 임상, 19(1), 16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123.

- Bagozzi, R. P., & Yi, Y. (1991). Multitrait-Multimethod Matrice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4), 426-439.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lau, G. L. (1988). Further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3), 284-297.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2), 196-202.
- Blustein, D. L., Ellis, M. V., & Devenis, L. E. (198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two dimensional model of the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rocess [Monograp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3), 342-378.
- Brown, D. (1995). Values-based approach to facilitating career transition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4-11.
- Brown, S. D., & Lent, R. W. (1996). A social cognitive framework for career choice counseling.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4), 354-366.
- Claes, R., & Quintanilla, S. (1994). Initial career and work meanings in seven European countrie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4), 337-352.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Collins.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awis, R. V., & Lofquist, L. H. (1984).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An individual-differences model and its application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iener, E., Scollon, C. N., & Lucas, R. E. (2003).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 13, 187-219.
- Diener, E. D.,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Lucas, R. E., Oishi, S., & Suh, E. M. (2002). Looking up and looking down: Weighting good and bad information i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4), 437-445.
- Dik, B. J., Eldridge, B. M., & Steger, M. F. (2008). *Development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In meetings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 Dik, B. J., Sargent, A. M., & Steger, M. F. (2008). Career Development Strivings Assessing Goals and Motivation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lann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5(1), 23-41.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Definitions and Prospects for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 Dik, B. J., Eldridge, B. M., Steger, M. F., & Duffy, R. D.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 and brief calling scale

- (B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242-263.
- Douglass, R. P., Duffy, R. D., & Autin, K. L. (2015). Living a Calling, Nationality, and Life Satisfaction A Moderated, Multiple Mediator Mode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069072715580324.
- Duffy, R. D., & Dik, B. J. (2013). Research on Calling: What Have We Learned and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3(3), 428-436.
- Duffy, R. D., & Sedlacek, W. E. (2010). The salience of a career calling among college students: Exploring group differences and links to religiousness, life mean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1), 27-41.
- Duffy, R. D., Allan, B. A., & Bott, E. M. (2012).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vestigating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3), 469-479.
- Duffy, R. D., Allan, B. A., & Dik, B. J. (2011). The presence of a calling and academic satisfaction: Examining potential mediat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1), 74-80.
- Duffy, R. D., Dik, B. J., & Steger, M. F. (2011). Calling and work-related outcomes: Career commitment as a mediat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8(2), 210-218.
- Duffy, R. D., Allan, B. A., Autin, K. L., & Bott, E. M. (2013).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It's not about having it, it's about living i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42-52.
- Duffy, R. D., Manuel, R. S., Borges, N. J., & Bott, E. M. (2011). Calling, vocational development, and well being: A longitudinal study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2), 361-366.
- Duffy, R. D., Bott, E. M., Allan, B. A., Torrey, C. L., & Dik, B. J. (2012). Perceiving a calling, l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Testing a moderated, multiple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1), 50-59.
- Duffy, R. D., Foley, P. F., Raque-Bodgan, T. L., Reid-Marks, L., Dik, B. J., Castano, M. C., & Adams, C. M. (2012). Counseling Psychologists Who View Their Careers as a Calling: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293-308.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eller, D., Watson, D., & Ilies, R. (2004). The role of person versus situation in life satisfaction: a critical examin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4), 574-600.
- Hernandez, E. F., Foley, P. F., & Beitin, B. K. (2011). Hearing the Call: A Phenomenological Study of Religion in Career Choic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8(1), 62-88.
- Hirschi, A. (2010). The role of chance event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personality and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1), 39-49.
- Holland, J. L. (1997).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King, W. C., Miles, E. W., & Day, D. D. (1993). A test and refinement of the equity sensitivity construc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4), 301-317.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Guilford.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indley, L. D. (2005). Perceived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nt of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3), 271-287.
- Lips-Wiersma, M. (2002). The influence of spiritual "meaning-making" on career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1(7), 497-520.
- Marcia, J. E. (1993). *Ego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Springer-Verlag.
- Michalos, A. C. (1991). *Global report on student well-being, Vol. II: Family, friends, living partner, and self-esteem*. Springer-Verlag Publishing.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Nauta, M. M. (2007).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4), 446-462.
- Peterson, C., Park, N., Hall, N., & Seligman, M. E. (2009). Zest and work.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2), 161-172.
- Phillips, S. D., & Paziienza, N. J. (1988). *History and theory of the assessment of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 making*.
- Russell, J. E. (2008). Promoting subjective well-being at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117-13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Russel, R. K. & Petrie, T. A. (1992). *Academic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sessment and counseling*.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Saks, A. M., & Ashforth, B. E. (2002). Is job search related to employment quality? It all depends on the fi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646-654.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 Span, Life 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 Savickas, M. L.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42-70). Hoboken, NJ: John Wiley.
- Scott, D. J., & Church, A. T. (2001).

- Separation/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cidedness and commitment: Effects of parental divor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3), 328-347.
- Seligman, M. E. (2002).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 3-12.
- Shin, J. Y., Steger, M. F., & Lee, K. H. (2014). Major Incongruence and Career Development Among American and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3), 433-450.
- Steger, M. F., Pickering, N. K., Shin, J. Y., & Dik, B. J. (2010). Calling in Work Secular or Sacred?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8(1), 82-96.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Vol. 195). New York: Harper & Row.
- Taylor, A. B., MacKinnon, D. P., & Tein, J. Y. (2008). Tests of the three-path mediated effect.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 241-269.
- Treadgold, R. (1999). Transcendent vocations: Their relationship to stress, depression, and clarity of self-concept.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39(1), 81-105.
- Vansteenkiste, M., Lens, W., Witte, S. D., Witte, H. D., & Deci, E. L. (2004). The 'Why' and 'Why not' of job search behavior; Their relation to searching, unemployment experience, and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3), 345-363.
- Walsh, W. B. (2008). Introduction: Special issue on career theory, assess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3-5.
- Ware, M. E., & Pogge, D. L. (1980). Concomitants of certainty in career related choice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8(4), 322-327.
- Wrzesniewski, A. (2003). Finding positive meaning in work.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296-308.
- Young, R. A., & Valach, L. (2004). The construction of career through goal-directed 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3), 499-514.
- 원 고 접 수 일 : 2015. 8. 10  
수정원고접수일 : 2015. 11. 2  
게재결정일 : 2015. 11. 14

**A Structural Analysis of Career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areer Choice Commitment and Academic Major Satisfaction -**

Ji-won Lee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mediating effect of career choice commitment and academic major satisfaction on the association between career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For this, a total of 272 undergraduates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measuring career calling, career choice commitment, academic majo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MOS 18.0 and SPSS 21.0. The main findings fr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re as follows. First, career calling showed direct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re were partial mediation effects of career choice commitment and academic majo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indirect effect was significant.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path between career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and highlight the important role of career choice commitment and academic major satisfaction. Also implications for counseling practice are discussed and future research suggested.

*Key words* : Career Calling, Career Choice Commitment, Academic Major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